



몽골 부 마* 부부 상담 및 지원

몽골 마*씨한테서 긴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 부*씨가 비가 많이 오던 지난 밤 늦은 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일산에 있는 백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있노라고. 이 가정은 7.8년 전 쯤인가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우발적으로 죽인 사건으로 미성년인 작은 아들이 3년 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일 때 만난 가정으로 오래 전 선교통신에 소개했던 가정입니다. 마*씨는 몽골에서 소아과 의사였지만 남편이 한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사는 동안 남편과의 문제가 많아서 관계 회복을 위해 자주 한국을 방문했고, 큰 아들이 군복무를 마치자 두 아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왔고, 마*씨 자신도 식당같은 곳에서 알바를 하면서 의정부에 있는 신한대학교에서 아동심리학 석사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주적 삶으로 인해 남은 가족들까지 한국행을 선택했으나 가정 구성원간의 격리와 불화, 형제간의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결국 두 아들 사이에 끔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때 저를 찾아온 마*씨는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임에도 생의 종착점에 당도한 사람 같았습니다. 두 아들이 그렇게 된 후 부부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마*씨는 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약에 의존한 채, 살아가는 유일한 희망이 17살 난 아들이 아직 미성년이니 정상참작 되어 형기를 좀 더 빨리 마치고 함께 몽골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은혜인 것이 마*씨를 자주 불러 대전교도소를 함께 다니면서 위로상담을 하고 기도해주며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함께 구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 신앙의 힘으로 큰 고통을 견디며, 다문화가정들과 함께 제주로 치유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고 3년 후 아들이 교도소에서 나와 몽골로 돌아가서 다시 학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씨는 몽골과 한국을 자주 오가며 남편을 설득하여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아주 몽골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는 와중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남편 부*씨 몸골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타박상도 심했지만 머리가 깨져 피가 고인 상태라 하고 차체에 크게 부딪혀 골반뼈가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마*씨의 부탁으로 사건 현장을 수습하고 조사에 착수한 담당 경찰과 통화를 하였는데, 사고 당한 부*씨의 진술과는 다르게 경찰은 이미 사고 낸 운전자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보니 거의 100% 보행자 과실인 무단횡단으로 여겨진다고. 병원에 옮기는 과정에서 부*씨가 부인의 핸드폰 번호도 모르고 사건 진술도 오락가락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거짓 진술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인 부*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충격이 가시지 않은 몸상태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과 서툰 한국 말로 진술한 것을 경찰이 거짓 진술로 판단하며 마치 불법체류자 신분이 커다란 인격적인 결격 사유라도 되는양 '그는 불법체류자고, 왜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느냐'는 사건 조사관의 말투가 지나치게 고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부*씨는 자신이 술은 마셨지만 분명 무단횡단이 아니라 횡단보도 선 안에서 파란 신호등을 분명히 보고 건너가다 당한 사고라고 주장하기에, 사고를 크게 당한 피해자인데다 게다가 한국말이 서툰 사람의 진술만으로 단정해서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거냐고. 아무리 경찰이라도 우선 피해자의 몸 상태라도 찬찬히 살피고, 그 이후에 더 정확한 과실을 판단해도 되지 않겠냐며 경찰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한주간 정도 시간이 경과되고 차 사고와 관련된 검사들을 해보니 부*씨의 깨진 머리 부위와 외상은 큰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았고, 단지 부러진 골반뼈가 앞으로 다시 붙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지 장애로 남을지가 걱정이었습니다. 대형 병원이라 중증이 아니면 계속 입원치료가 어렵기에, 남은 치료는 환자가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부*씨 사는 집 근처 병원을 알아보고 병원을 옮겨주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장애가 남느냐 아니냐이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상 문제가 남아 있기에 이주민 교통사고와 피해보상 문제를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를 경기도이주인권센터 실무자로부터 소개받았습니다. 운전자쪽 보험회사 직원이 블랙박스에 녹화된 사고 순간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비가 많이 내리는 밤에 무단횡단으로 도로를 건너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

을 주장하며 치료는 받게 되겠으나 합의 보상금을 받을 게 거의 없다는 일방적 통고를 해왔습니다. 동영상 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부*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합의금 보상을 도와줄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소개받은 변호사를 만나러 부천에 있는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먼저 전화상으로 문의했을 때 '아무 걱정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며 저희를 안심시킨 변호사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소개받은 내용이나, 전화상으로 자신이 그동안 맡은 사건에서 자동차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이주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많이 해결해본 경험치가 많으니 걱정 말라던 사람이 먼저 착수금 3백 40만을 요구하더군요. 지금은 이 가정이 돈이 없으니 사건이 해결되고 합의 보상금을 받으면 후불로 주겠다고 사정했음에도 변호사는 착수금 없이는 이 사건을 맡을 수 없노라고 사무적으로 얘기하는데 함께 동행한 마*씨와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사무실 벽면에 이주민들을 변호한 경력이 많은, 마치 인권변호사인양 자신을 포장한 경력란이 적혀있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무척 실망스러웠습니다.

결국 마*씨도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남편 부*씨도 가급적 한국생활을 빨리 정리하고 몽골에 돌아가고 싶어 해서 제일 걱정되는 장애 여부를 조금 감안하여 결국 가해 차량 운전자쪽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상금 1,400만원 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마무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부부가 함께 몽골로 돌아가는 날 이 가정을 떠나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며 기도했습니다. 몽골 도착하면 곧바로 교회를 정해서 그동안 입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생활 잘 하라고. 한국에서 많은 아픔을 겪은만큼 작은 아들 잘 돌보고 부부가 다시 사랑으로 회복되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부디 이 가정이 아픔을 딛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행동'이 주관하는 기도회를 매달 한번씩 주로 서울에서 갖는데, 이번 4월27일(목)에 미얀마 난민 사역을 하는 저희 교회(이주민센터)에서 기도회와 난민 당사자들의 증언 및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함께 식사하면서 미얀마 내전 상황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눴고 어떻게 이 기도모임을 지속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 까를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행동에서 4명, 외부에서 2명, 저와 난민 가정들 11명 모두 합해서 17명이 참석했습니다. 언어 소통의 문제도 있지만 평소 난민분들과 미얀마에 있는 가족들을 비롯한 내전 상황에 관한 얘기들을 나누기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당사자들의 관심 정도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안타까워 하고 함께 도울 길을 모색해보는 값진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미얀마 난민 가정들이 참여하는 기도모임으로, 김포에 사는 난민 가정들이 스스로 도울 길을 찾는 모임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제목**

1. 미얀마 난민 가정들의 자녀교육 환경과 주거환경이 더 나아지도록
2.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미얀마 난민촌에 구호물품을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3. 미얀마 난민 가정 30여명이 참여하는 여름 캠프를 7월22일(토)-23일(주일) 강원도 속초 현대수리조트(철원 국경선 평화학교 경유)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평화를 배우며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자연환경에서 숨쉬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에 필요한 재정적 후원도 채워지도록 기도해주세요.

2023년 7월 3일

작은이의벗 친구교회◆더불어함께 이주민센터 : 이학산목사

(후원계좌 : 농협 150109-51-140298)